

덕필유린(德必有隣)

==☆==☆==☆==☆==

조선 철종때 경상도 상주 땅에  
서씨 성을 가진 농부가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서선달'이라고 불렀다.

원래 선달이란 과거 시험에 급제는 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 사람은 무슨 급제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냥 사람의 심성이 착하고 무던해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합니다.

서선달은 남의 땅을 빌려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인가는 봄이 왔어도 그해 농사를 지을 비용이 없을 정도로 곤궁 하였습니다.

생각다 못한 그는 부산 쌀가게에서 장부를 담당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큰 아들을 찾아갔습니  
다.

효자 아들은 주인께 통사정을 하여 6개월치 월급을 가불받아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서선달은 100리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돈을 흘려 잃어버리  
고 말았습니다.

이때 반대쪽에서 고개를 넘어오던 한 양반이 이 돈꾸러미를 발견했는데 세어보니 백냥이나 되  
는 큰돈이었습니다.

한편 서선달은 30리는 더 가서야 돈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는데 전 재산을 잃어버렸으니 눈앞  
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돈을 발견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황재라고 좋아하는 하인에게 일러 말합니다.

"잃은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목숨같이 귀한 돈을 잃은

그 사람은 얼마나 속이 탈꼬 !!"

그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몇 시간이고 돈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한참 후 서선달이 얼굴이 흙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주운돈을 서선달에게 돌려주자 서선달은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하며 돈을 찾아준 은혜를 갚겠다며 사례를 하려 하는데~

그 사람은 "은혜랄게 뭐가 있소 당연한 일인데" 하고는 펄쩍뛰며 사양을 했습니다.

그는 주운 돈 100 냥을 서선달에게 전달 해 준뒤 가던 길을 갔습니다.

서선달도 다시 집을 향해 갔고 이윽고 어느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소년이 물에 빠졌는데 구경꾼은 많아도 누구 하나 뛰어들어 구해 줄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엄을 못치는 서선달이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저소년을 구해내면 백냥을 주겠소"

그러자 어느 장정이 뛰어들어 소년을 살려 냈습니다.

죽다 살아난 도령이 선달에게 말하기를

"정말 감사합니다. 어른이 아니었으면 저는 수중고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희 집은 안동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함께 가시면 백냥을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서선달은 무슨 사례를 받고자 한일은 아니었으나 자기의 사정도 있는지라 같이 안동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안동의 총각집은 과연 고래등 같은 부자집 이었습니다.

그때 소년의 부친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친이란 사람은  
다름 아닌 서선달의 돈을 찾아준  
바로 그 노인 이었습니다.

"온 재산을 털어 제 아들을 구해 주시다니 당신은 진정 의인이요  
정말 고맙소이다."

"아닙니다.

댁의 아드님은 어르신께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제가 돈을 잃었다면 무슨 수로 살렸겠습니까?"

"겸손의 말씀 이십니다.  
7대 독자 외아들을 살려주신 은혜 백골이 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안동 권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살려준 보답으로 돈 천냥을 나귀에 실어 서선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서선달이 사는 상주 고을을 찾아와 백섬지기 전담까지 사주고 돌아갔습니다.

이 일은 후에 조정에까지 알려져 안동과 상주 두 고을은 모두 조정으로 부터 후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착하게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착한 것이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덕필유린"입니다...

덕이 있고 심성이 착한 사람은 반드시 주위에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착하고 양심적으로 사는것이 바보같아 보이지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사는 지름길이라는것을 명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